

祝 辭

2017. 9. 13

금융위원장 최종구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번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를 개최해 주신
5개 금융협회장님들과 53개 금융회사 CEO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청년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젊고 의욕 충만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개개인의 복지 증진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청년들이 가장 일하고 싶어하는
금융권에서 신규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채용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한 노고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오늘 행사를 통해 금융권 구직을 희망하는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II. 금융권 일자리 확대의 필요성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유발효과가 큰 금융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 매출액 10억원당 고용유발효과 : 금융업 9.6명, 전산업평균 8.7명

최근 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전통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보다 생산적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금융산업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대고객 서비스업입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지속적으로 채용·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기술 혁신에 따른 금융산업 환경 변화는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 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블록체인을 활용한 지급결제서비스 개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근로 의욕과 기술활용도가 높은 청년층 채용을 확대한다면,
금융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기술혁신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III. 바람직한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향

앞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권의 일자리 확대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회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수익성이 제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금융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적정한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영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우선, 권역별 영업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금융회사의 자유로운 영업을 제한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적극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현장지원팀과 읍부즈만 등을 통해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청취하고,
업권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금융회사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금융업 인허가체계 개편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사업에 원활하게 진출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보다 쉽게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테스트베드 시행을 확대하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은 다양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용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여성, 지역인재 등에 대한 문호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조직구성원의 다양성 확대는
조직문화를 풍요롭게 하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을 통해
금융회사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됩니다.

포용적 고용은 금융회사 발전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금융당국도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 및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금융산업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넘어
다른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혁신적인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도 자본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기술금융 제도도 진일보시켜,
금융회사들이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금융권 일자리 확대를 위한
금융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안을
9월중 마련하여 모범사례를 만들고,
향후 민간부문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이 우선하여
여성, 지역인재 및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채용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융권이 안심하고 생산적 분야에
모험자본 공급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4차산업 지원 투·융자 복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도 강화하겠습니다.

VI. 금융권에 대한 당부사항 및 맺음말

“아이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라”는 말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시혜성 지원이 아니라
자립할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는
우리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져야 하는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오늘 행사가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